

# 교수-학생 관계에 대한 하나의 성찰

나 간 채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 1. 머리말

우 리 사회에서도 대학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말을 흔히 듣는데, 그 때 필자는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잠깐 생각해 본다. 무엇이 대학을 아름답게 만드는가? 먼저 대학의 자연이 그러하다. 조밀한 도시의 공간보다 현재의 대학은 넓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공휴일이나 평일의 하루 해가 저물어 가면 이웃의 시민들이 캠퍼스의 이곳 저곳에 모여 든다. 키 큰 나무, 푸른 잔디, 싱싱한 화초, 넓은 운동장은 과연 아름다운 삶이 깃들 수 있는 공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의 사회가 갖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이다. 그렇다면 대학사회의 무엇을 말하는가? 우선 대학의 구성원에서 그것을 발견한다. 대학은 교수와 학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교수는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심오한 지식을 보유하고 또 창조할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도덕적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명예를 향유하는 지성인이다. 학생은 젊고 건강하고 패기에 찬 미래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무한의 잠재력을 내장한 주인공이다. 지성과 감성, 경륜과 젊음의 경이로운 조화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대학이다. 또한 이들은 일반의 사회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광범한 자유를 향유한다. 모든 억압과 편견과

권위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이념과 양심에 따른 학문의 자유, 즉 연구·발표·교수의 자유를 추구하고 실천한다. 대학의 공기는 자유롭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들이 수행한 역사적 역할은 지대하다. 독특한 방법으로 지식을 창조하고 축적하며, 이를 토대로 사회발전과 인간의식의 진보를 주도해 나갈 지식인을 길러냄으로써 인류사회를 진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그 역할이 갖는 중요성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역사 속에서 급속히 증대되어 왔다. 아마도 대학의 이러한 특성들이 그 아름다움의 징표가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대학의 이와 같은 성공은 평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참되고 옳은 것을 찾아 내려고 하는 강인한 정열과, 대학을 오염시키고 타락으로 이끄는 외부의 유혹과 억압에 대한 부단하고도 의지에 찬 싸움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면 진리와 정의 그리고 자유를 위한 이 싸움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생명력의 원천은 교수-학생의 동지적 결합에 있다고 본다(김철수, 1981:8). 왜냐하면 교수와 학생은 존재론적으로 상호의존적이며 자기를 대자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관계, 따라서 대학의 실체를 자기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학의 발전사에서 교수-학생의 동지적 유대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위기의 시기도 있었고 사회문화적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결합의 양상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초기의 대학에서는 공동체적 유대가 강고했지만, 그 이후 특히 거대 대학의 현실에서는 그 결합이 이완되기도 하였으며, 더 나아가

서 상호간에 불신과 미움의 너울이 캠퍼스 일부에 드리워진 때도 있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대학에서도 지난 30여 년의 역사에서 교수-학생의 관계가 상호신뢰의 토대에서 애정과 존경의 동지적 결합체로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70, '80년대 비민주적 권력의 과도한 통제와 조작에 의해 아름다운 사제관계는 상당 부분 오염되었고, 파행을 거듭하여 상호불신의 벽이 두꺼워진 측면이 없지 않았다. 또한 최근의 과학기술혁명과 그에 따른 새로운 문화변동은 기존의 교수-학생관계에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의 두 주체인 교수-학생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성찰해 보는 것은, 일면 새삼스러운 감이 없지 않으나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교수-학생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그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매우 규범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어서 일의적으로 재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필자 개인의 자기반성적 입장에서 먼저 교수-학생관계의 고전적 형태를 돌이켜 보고 난 후, 지난 '70, '80년대 우리 사회의 대학에서 체험했던 파행의 사례를 반추하여 변화된 오늘의 교육여건 속에서 바람직한 관계를 암시해 보고자 한다.

## 2. 존경과 애정의 전통

대학에서 교수-학생의 관계는 하나의 사회관계로서 그 형식과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형식적 측면에

서 보면, 첫째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상대방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상호 필수불가결한 성격을 갖는다. 대학생이라면 그를 지도한 교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교수 역시 학생이 없이는 존재 근거가 없는 다만 학자일 뿐이다. 둘째는 이와 같이 맺어진 관계는 순간적이거나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 지속된다. 짧으면 한 학기 내에 끝날 수 있지만, 길게는 생애의 관계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서로의 인생에 중요한 계기가 아닐 수 없다. 셋째는 양측이 고유한 인격자로서 형성되지만, 지적 권위를 기초로 한 교수와 이를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 간에 위계적 차이가 있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이다. 물론 이러한 차이가 권위주의적 일방적 불평등관계를 형식화하는 것은 아니고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함께'하는 영역이 창출됨으로써 동지적 유대가 발전된다. 관계의 이와 같은 지속성과 비대등성은 불가피하게 학생으로 하여금 교수의 영향을 받게 한다.

다음으로 실제적 측면에서 보면, 교수-학생의 관계는 그 내용의 광범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편의상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본다면, 하나는 전문지식을 매개로 하는 학술적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전인격적 사적인 일까지도 포함하는 인간적 관계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영역이 상호배타적이고 독립적인 것은 아니고 교육적 실천의 현장에서는 상이한 정도로 융합되어 있고 또 상승작용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자가 최소한의 공식적 관계에 토대한 학문적 지식의 전수와 토론의 영역으로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후자는 정의적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삶의 광범한 영역을 함께하는 측면으로서 이

경우에는 학생에 따라 차별적이고 선택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에 토대하여 교수-학생간의 관계를 두 가지 모형, 즉 최소모형과 최대모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최소모형은 주로 전공분야에 대한 공식적 강의와 토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그 상황에서 정의적 요소가 최소화된 형태이다. 이 경우에 교수는 전문지식을 기능적 효율성에 따라 기술적으로 전수하고 학생 역시 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이의 전형적인 형태는 지식의 수요-공급에 따른 기계적 경제법칙으로 환원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최대모형은 전문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와 토론에 정의적 요소를 투입할 뿐만 아니라 교수의 전공분야와 관련이 적은 학생의 중요한 관심사까지도 공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구분법은 하나의 이념형적 순수형태로서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극단적인 것이고, 현실은 항상 이 양극을 잇는 선의 어느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을 터이다. 다만 우리는 이 잣대를 가지고 교수-학생간의 관계를 성찰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교수와 학생의 수가 적었던 초기의 대학에서는 강한 공동체적 성격을 갖는 최대모형에 근접한 형태를 보였던 반면, 규모가 거대해진 현대의 대학에서는 최소모형에 접근해 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계모형과 관련하여 교수에 대하여 학생이 갖는 역할기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학생들이 기대하는 교수-학생의 바람직한 관계모형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자료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그들은 역시 교수로부터 질 좋은 지식을 얻고자 한다. 물

론 학점 잘 주는 교수의 강의에 다수의 학생이 몰리는 경우가 흔히 있고, 제한된 교육여건 때문에 원하는 과목에 수강신청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심오하고 신선하며 재미있는 강의에 학생의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학생들은 가르침에의 정열과 애정을 갖는 교수를 기대한다. 메마른 지식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교수의 정성을 함께 담아서 그것이 학생의 영혼에 불을 지피는 교수를 기대한다. 그들은 맥빠진 강의에 지겨워하며 정열에 찬 강의에 쉽게 감동하고 환희한다. 이와 같은 열성적인 강의는 학생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또한 학생에게 애정이 없는 교수는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애정을 느끼는 정도가 문제될 뿐이다.

학생들은 교수의 이러한 사랑을 교실 밖에서도 원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과 고뇌, 사회와 역사의 문제를 함께 토로하고 싶어한다. 바쁜 교수들에게는 어려운 부담이 되겠지만, 학생은 교실 밖에서의 애정어린 만남을 더욱 절실히 기대한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교수-학생 간의 거리는 가까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여름날 술에 떨어진 교수를 등에 업고 가면서 아버지를 느꼈다는 학생의 회고담은 이를 증거한다. 그래서 교수가 학생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학생에 대한 애정이며, 여기에서 사제간의 신뢰관계는 성장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제간의 이와 같은 이상적인 관계가 우리의 구체적 현실에서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왜곡과 파행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대학에서도 그러한 사례를 적지 않게 경험해왔다. 다음은 교수-학생관계와 관련된 사례들, 특히 교수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개인적 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 3. 몇 가지 사례들

어느 지방대학의 교수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아마도 1981년쯤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당시는 학생들의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이 매우 치열했고, 이에 대한 군부권력의 억압 역시 극심했다. 국민의 기본적 자유는 제약되었고 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철저하여 많은 기관원이 교내의 일부 건물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움직임을 항상 감시하고 있었다.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학생들이 구속, 수감되어 있었고 또 수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느 날 수배된 학생을 단과대학 학생과장이 불러들였다. 그 때는 단과대학 학생과장을 교수가 겸직하고 있어서 이 학생은 그 교수의 부름을 받고 사무실로 찾아가 만났는데, 나오는 길에 근방에 있던 기관원에게 체포되고 만 일이 있었다. 물론 그 학생과장과 기관원이 사전에 의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후 학생들의 입에서는 여러 가지 억측이 무성했고 그 과정에서 교수에 대한 불신감이 널리 퍼져 나갔다.

그러나 이것은 유신정권 이후 우리 사회의 대학에서 교수-학생 간의 불행했던 관계에 대한 하나의 극적인 예에 지나지 않는다. 허다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추방당해 철

창 안에 갇히고 고문당할 때, 그 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교수들은 학생들이 당하는 그 부당한 사태에 대하여 무력함을 보였다. 운동권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열린 교수회의에서, 위로부터 주문받은 징계안이 학장에 의해 제안될 때, 그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다수의 교수들은 침묵함으로써 통과시킨 적이 다반사였다.

그리고 주목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명단이 통보되면 학과의 교수들은 이를 분담하여 매일 그 학생의 동태에 대한 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차마 스스로 그 빈칸을 메울 수가 없어서 대개는 조교가 대신 작성했지만, 학생이 연행당하거나 체포되면 으레 지도교수나 학생담당 보직교수가 경찰서에 출두하여 각서를 쓰고 나왔다. 동행했던 교수들끼리 서로 얼굴을 바로 보지도 못하면서 홀로 웃음지으며 아무 말없이 나왔던 기억이 필자에게도 있다.

교수들의 나약함과 '애정 없음'이 여기 저기에서 확인되자 학생들은 이제 교수들을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정당성 없는 정권에 드러내지 않고 영합했던 행적이 학생들의 대자보에 게시되었다. 마침내 학생들은 어용교수 명단을 작성하여 발표했고 그들의 퇴진을 외쳤으며, 심지어는 그 교수의 연구실 출입문에 못질을 하기도 했다. 사태의 진전에 따라 교수들에 대한 공격의 범위도 확장되었다. 학생들이 직접 무능교수를 지목하고 성토했다.

너울에 가리워졌던 교수사회가 이와 같이 황폐화되자 이제는 그 추한 구석도 드러났다. 예컨대 교재 채택료 문제는 전형적인 것에 속한다. 수강생이 많은 교양과목 교재를 출판할 때, 업자와 담합하여 판매가격을

높이고 그에 따라 정당한 인세 이상의 상당한 채택료를 일부 교수들이 수취해 왔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폭로되었다. 학생들은 이에 분노했고 해당 교수를 공격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70, '80년대 우리 사회의 대학에서 교수-학생의 관계를 드러내는 전체적인 증거는 될 수 없지만, 극히 불행했던 사제관계의 한 단면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대학사회 안팎의 여러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 먼저 대학 외부의 관련 요인으로는 군사정권의 교육정책이 대학의 자율권을 극도로 제한하여 통제하였고, 그 결과의 하나로 교수와 학생의 인격적 신뢰와 유대를 균열시키고 상호간에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작용하였다. 앞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학생지도라는 구실로 교수가 학생을 감시하도록 하거나, 교수가 학생의 징계를 결정하도록 하는 형식적인 제도적 장치는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교수-학생 간의 대립구도를 현실화하는 메커니즘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두번째 요인으로는 타락한 자본의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교수의 현실을 미끼로 그들을 유혹하여 대학사회를 오염시키고 교수-학생 간의 인격적 불신을 조장한 데는 함께 한 교수보다도 자본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보다 많은 이윤추적을 도모해온 한국 자본주의의 천민적 특성이 대학에도 침투한 사례를 우리는 흔히 본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교수-학생 간의 인격적 관계가 이완되고 소원해진 요인은 대학 내부의 구조적인 요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대학의 대중화 현상의 하나로 1980년 이후 진전된 학생수의

급격한 팽창과 관련된다. 통계에 의하면, 1965년의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교수 1인당 학생수가 20.0명이었는데, 이러한 추세가 '70년대까지 지속하다가 1980년에는 29.7명으로, 그리고 1985년에는 37.8명으로 급증해왔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1: 116). 이러한 사실은 학생이 인격적으로 교수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제약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더구나 그 시기에 교수에 대해서는 재임용제 등을 시행하여 연구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보다 강화된 점을 고려할 때, 접촉의 기회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또한 학생수가 증가한 결과 그만큼 교류관계가 복합적으로 되고, 따라서 개인이 수행하게 되는 상호접촉의 필요량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바, 이는 접촉밀도의 완화현상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증가된 학생수는 개인별 취업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1970년대에는 60%를 상회하였으나, '80년대에는 40%대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통계청, 1994: 135). 대학생의 이와 같은 객관적 구조적 조건은 대학 내의 인간관계, 특히 교수와의 관계를 밀도있게 강화시켜 나가기 어렵도록 하였는 바, 그 결과 더욱 공식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이는 흔히 말하는 학생의 개별주의적 성향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80년대 대학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볼 때, 교수사회의 신비화된 내막이 드러남으로써 교수의 나약함과 학생에 대한 애정이 투철하지 못함이 확인되고, 더 나아가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인격적 권위가 실추된 불행한 시기였다. 따라서 교수-학생의 관계도 인간적 존경과 상호신뢰

의 유대가 약화되고 공식적·피상적·기능적 관계의 특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 4. 변화된 교육환경에서

교수-학생 간의 관계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대학 바깥의 사회적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학 자체가 하나의 하위조직이고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과학기술과 사회문화적 변동의 속도는 가히 놀랄 만하다. 이러한 시기에 교수-학생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 것인가? 이를 탐색하는 데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동의 일면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교수-학생관계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그간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거듭해온 결과, 분배의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1995년에는 국민소득이 일만 불에 도달하였음을 자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소득수준의 향상은 소비성향을 자극하였고, 최근에는 이르러서는 소비사회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간은 단축되고 저축률은 하강하며, 각종의 여가와 유흥 산업이 각광을 받는 것은 단적인 증거이다. 이제는 생산의 윤리보다는 소비문화가 사회의 전면에 부상하였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한국 자본주의가 부정과 비리의 천민성을 특징으로 하여 성장하였듯이, 천박한 과시적 소비와 향락의 늪으로 나아가고 있다.

급속히 보급되는 새로운 교통수단, 각종 통신기기, 컴퓨터 등 첨단 생활용품은 보

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시·공간 개념을 뒤바꿔 놓았고, 그에 따라 삶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변혁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이른바 포스트-모던의 문화양식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포스트-모던이 기존의 가치와 일체의 권위, 역사의 진보를 부정하고 영원한 해체와 무의미성의 세계로 질주함으로써 진실과 허위, 율음과 그림, 도덕과 반도덕의 구별 자체를 거부하듯이, 우리 사회의 삶의 양식,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삶에는 기존의 원칙과 도덕성의 감각이 급속히 소진되어 가고 있다.

전체 사회의 이러한 변동과 병행하여 대학사회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의 대중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대학에 대한 간섭 영역은 부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학칙개정과 입시제도의 획일성은 이제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상당 부분 이양되었다. 학과의 통·폐합과 학부제의 추진, 대학평가와 교수의 연구실적평가제, 학생의 복수전공제와 이수학점의 하향 조정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학 개혁의 전체적인 특성은 개방은 하되, 경쟁력의 강화를 통해서 발전을 도모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의 대학생은 위에서 지적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대학내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해마다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대학의 문을 들어서고 나간다.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 찌든 이들은 다른 한편으로 소비사회의 타락상에 여과없이 노출되어 왔다. 입시교육과 새로운 문화 및 향락문화의 상반된 가치지향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해온 존재들이다. 또한 이들은 대학 입학에 대한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장기간 체험해 왔다. 그 결과 이들에게서 보이는 대

체적인 몇 가지 특성은 정신적 방황, 개별화의 성향, 취업을 위한 대학 생활의 도구화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수는 교수-학생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이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주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학생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좋은 해답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삶의 지침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진리를 거부하고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대중문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이에 도전하고 그러한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학생의 개별화 경향과 관련해서는 현대문명과 사회체제의 속성이 그러한 경향으로 이끈다고 하더라도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함께 사는 방법과 그 삶속에서 얻는 행복이 갖는 의미를 일깨워주어야 할 것이다. 취업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실에서의 전공학습을 통해 준비되는 것이지만, 이와 아울러 직업이 개인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수의 이러한 가르침은 교실의 안과 밖에서의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교실 안에서의 강의가 충실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이것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흥미있게 전수되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궁리 끝에 만화 형태의 교재를 구성했다는 사례(조재경, 1996 : 40)는 필자에게는 감동적인 것이었다. 효율적인 교수방법에 대한 부단한 성찰이 요구된다. 또한 교실 밖에서 학생과의 만남도 중요하다. 교수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실 밖에서 학생과 교수와의 만남이 더욱 증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교수가 전체의 58% 이고, 이러한 개별접촉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성호, 1992: 98~99). 오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느냐는 응답도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이 왜 오지 않는가를 스스로 묻고 그들을 오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또한 교수 사회에 연구실적을 위주로 한 시장경쟁의 논리가 교실 밖에서 학생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공교육과 통합된 방식으로 교실 안에서도 비중 있는 만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수에 대한 학생의 불신과 거리감은 상당 부분 회복된 감이 있다. 학생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대학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내·외의 환경도 개선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본다.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도 한층 고조되었고, 교수의 강의도 더욱 충실해졌음을 학생들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이 회복된 신뢰와 존경의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학생에 대한 교수의 애정을 교실의 안과 밖에서 복원하는 것이다. 비록 교수와 학생 간의 문화격차가 더욱 증대되는 현실에서 먼 과거의 공동체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보다 더 차원 높은 사랑을 교수는 실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을 토대로 하여 교수-학생의

관계가 정립될 때, 대학은 기능인의 메마른 지식시장이기를 그치게 된다. 교수는 부당한 자기부정을 통하여 지고의 권위를 정립하고, 한편으로 학생은 진리를 둘러싼 치열한 도전 속에서 가슴의 존경을 키운다. 이렇게 하여 성취된 교수와 학생의 동지적 결합은 시대의 양심으로서 진리와 정의의 최종 수호자 역할을 스스로 맡아 수행해낼 수 있고, 그 결과 대학의 아름다운 명예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철수.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생과 학문』. 서울 : 시사영어사, 1981.  
 이성호. 『한국의 대학교수』. 서울 : 학지사, 1992.  
 조재경. "공학교육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대학 교육』. 통권 80호(1996/3·4).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4.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의 소비생활 지표-1991』. 1991.

나간채/공주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전남사회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시민사회의 가치관과 시민윤리』(공저) 등이 있고, "고전적 계급의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직업계층간의 사회적 거리감", "공장 근로자의 사회의식에 대한 비교연구 :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